

## 환율·물가·무역 적자 급등 ... 주가 폭락

# 금융시장 '패닉'

### 경제 총체적 난국 ... IMF 이후 최악 지역 물가 상승률 6.0% '고통' 가중

원·달러 환율이 3년10개월 만에 1,100원대로 치솟는가 하면 증시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관련기사 11면〉  
여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물가마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 경제가 초비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27.00원 치솟는 것으로, 2004년 11월3일(1,116.2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환율 급등은 국내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

일보다 59.81포인트(4.06%) 떨어진 1,414.43으로, 코스닥은 439.21로 마감했다.

환율 불안과 미국증시 악화,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등 각종 악재가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6개월 만에, 코스닥은 3년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373억9천만달러, 수입은 406억2천만달러로 32억2천9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폭은 지난 1월(39억3천만달러)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올해 적자 누계가 115억7천

만달러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는 IMF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월간 무역수지가 5월(9억2천만달러)을 제외 한 7개월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물가공포'도 날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6% 올라 3개월째 5% 이상의 '고공행진'을 벌였다.

더구나 광주·전남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각각 6.0%, 5.9%에 달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물가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만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많은 경제지표가 IMF 이후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 광주비엔날레 최고? · 최대? 작품은



제7회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되는 1천여점 가운데 보험가액만 30억원에 달하는 미국 작가 고든 마타 클락의 작품.

# 클락 '네가 척도다' 보험가 30억

### 알로라 '감정의 앙금' 최대 기록 샤파의 '칼린' 제작 기간만 5년

<D-3>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 중 가장 비싼 작품은 어느 것일까?' 광주비엔날레(5일~11월9일)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뒀는(?)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가장 '귀하신 몸'은 미국 출신의 천재작가인 고든 마타 클락(1943~1978년)의 작품 95점이다. 이 작품들은 지난해 미국 휘트니현

대미술관에서 열린 '고든 마타 클락-네가 척도다'전에 출품된 것들로 보험가액만 30억원에 달한다.

제니퍼 알로라(미국)의 '감정의 앙금(sediments sentiments)'은 이번 비엔날레 출품작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가로, 세로가 각각 4.5m, 6.5m로 제작에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 마지막까지 재단의 예를 가장 많이 태운 작품이다. 재단은 며칠동안

묘안을 찾던 끝에 교육지책으로 20여개로 쪼개 들여왔다. 하지만 거대한 덩치만큼 무게도 문제였다.

시슬레이 샤파(브라질)의 '칼린(khaleen)'은 제작기간이 가장 긴 작품이다. 100달러 지폐를 본 뜬 24㎡ 크기의 웅장한 작품으로, 아프리카니스탄에서 5년 동안 한 땀 한 땀 썼다.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한 작품은 한스 하케(독일)의 '와이드 화이트 플로(Wide White Flow)'이다. 대형 실크 천에 바람을 불어 넣어 바다에서 칼라하게 한 작품으로, 324㎡ 크기의 전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가장 작은 공간을 차지한 작

품은 릴리 뒤주리(브라질)의 '메모리즈 오브 핸드(Memories of Hands)'로, 15cm가 채 못된다.

유일하게 생명체를 소재로 한 작품은 타니아(tania 쿠바)의 '센트럴 코리아(central korea)'로, 1천 마리의 지렁이를 상자에 넣었다. 이 밖에도 요하네 손필트(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 뮤지션스(for Musicians)'는 유일하게 사람이 실시간 연주를 한다. 마리아나 브니모브(베네수엘라)의 '초콜릿 셰크(chocolate shack)'도 관람객이 먹을 수 있는, 이번 비엔날레의 유일한 작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향후 5년간 세금 26조원 감면

### '2008 세계 개편안'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부동산세 인하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26조4천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줄기로 했다.

〈관련기사 4·5·11면〉  
이를 위해 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

준이 '9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계개편안의 연도별 순수감세액은 ▲2008년 1조9천억원 ▲2009년 6조2천억원 ▲2010년 9조8천억원 ▲2011년 3조3천억원 ▲2012년 1천억원 등 5년간 모두 21조3천억원이다. 여기에 이미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5조1천억원에 따른 일시적 감세 효과를 더하면 5년간 감세 규모는 26조4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애초 대기업 법인세도 올해부터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 연기로 남은 2조8천억원의 서민층 지원과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계개편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증대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상승 효과는 연 0.8% 이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세계개편안에 대해 민중당 등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불공정 개편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자와 대기업 위주 개편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중·장년층 자전거 타기 10년만에 청소년 앞질러

고유가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장년층의 자전거 소비량이 주 소비층인 청소년층을 앞질렀다.

1일 삼천리 자전거 광주지점에 따

르면 올 상반기(1월~6월) 광주·전남지역 자전거 판매량이 6만5천대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3만9천대(60%)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IMF 이후 10년 동안

부동의 주 소비층인 청소년들의 자전거 구입량을 반전시킨 것으로, 중·장년층이 레저·교통수단으로 자전거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자전거 매출에서 청소년과 중·장년층의 비율은 각각 60%, 40% 추세였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55%에 달하는 삼천리 자전거 제품이 판매량이 이같이 집계된 점을 고려할 경우 타 업체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류값 급등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자전거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 자전거사는 지난해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에서 6만1천대를 팔았으나 올 상반기에는 7% 늘어난 6만5천여대를 판매했다.

장영복 삼천리 자전거 광주지점장은 "유류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전거를 타려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황산 구화산 장가계

가장 빠르고 편한 직항 전세기

장사(장가계) 10월 2일 ~ ₩ 749,000 (기내식 포함)  
항주(황산) 10월 18일 ~ ₩ 629,000 (기내식 포함)  
황산-구화산(불교성지) ₩ 849,000  
상해, 항주, 소주 ₩ 499,000 (기내식 포함)

광주MBC 라디오 | ☎062)226-6070